

# 마약 청정지대 ‘옛말’ 범죄 갈수록 지능화

광주·전남 3년간 1,432명 검거

‘20~30대’ 비중 가장 높아

SNS·인터넷 등 손쉽게 접해

외국인 범죄 비율 21.8% 달해

‘마약 청정지대’로 불리던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며,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입국을 통한 마약 밀수가 어려워진 반면, SNS와 가상화폐 발달로 마약 입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432명(광주 701명·전남 73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의 경우 2019년 244명, 2020년 304명, 2021년 153명이었고, 전남은 2019년 219명, 2020년 280명, 2021년 232명이었다.

특히 연령대로 살펴보면 검거 인원 중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대는 249명(35.5%)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204명(29.1%)으로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40대(143명·20.3%), 50대(65명·9.2%), 60대 이상(31명·4.4%), 10대(9명·1.2%) 등 순이었다.

지난 2017년 39명이었던 광주지역 20대 마약사범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 121명으로 늘었고, 30대 또한 2017년 46명에서 2020년 94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판매가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약 거래는 주로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사용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

를 위한 방안으로 마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외국인은 313명(21.8%)으로, 2019년 84명에서 2020년 131명, 2020년 98명으로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는 그 형태가 조직적인 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불법채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민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등 마약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한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불법채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외국인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거주지인 광산구 한 원룸에서 이달 14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집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붙잡았고, A씨 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 모두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마다 끊이지 않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마약의 유희에 스며들지 않도록 예방 홍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춘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장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경우 SNS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문구를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접한다”며 “본인도 모르게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할 수 있는데 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마약을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다보니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코로나19 시기에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무엇보다 마약의 경우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중고 시절부터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해외에 본사를 둔 어플리케이션과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등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면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개인·사회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평화통일 공감 전시회

23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22 남구 평화통일 공감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관람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 전남교육청, 올해 인공지능 교실 50개교 구축

창의적 협력 학습 기대

전남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교실 50개교를 구축한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I 교실은 낡은 컴퓨터실을 개선한 공간으로 인공지능 교육

과 다양한 교과·교육활동이 가능하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57개교에 AI 교실을 만든 데 이어 올해 50개교를 추가설치한다. 지난 20일에는 전남대 사립홀에서 AI 교실 구축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도교육청은 설명회에서 미래형 수업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진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교실을 특색있게 구축해주면 좋겠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 북구합창단 신규단원 내달 13일까지 모집

광주시 북구는 다음달 13일까지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에서 활동할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합창단 지원 자격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부터 64세 이하 주민(여성)이고 시니어합창단은 만 65세 이상 주민이다. 매주 화

요일·금요일 정기 연습과 수시 공연에 참여해야 한다.

실기심사는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자는 3곡의 지정곡 중 1곡을 선택해 실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

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합창단은 지난 2000년에 시니어합창단은 2008년에 창단됐으며 각각 40여 명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전국 합창대회 수상으로 공연 능력을 널리 인정받았으며 위문공연 등을 통한 재능 기부도 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 동구, 불법 노상 적치물 집중 단속

광주시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는 5·6월 두 달간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이후 정비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법 점유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합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은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 FUNIS

##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